

2020 한양대학교 ERICA 논술 출제의도 및 예시답안

2020학년도 한양대학교 ERICA 논술 출제의도 및 예시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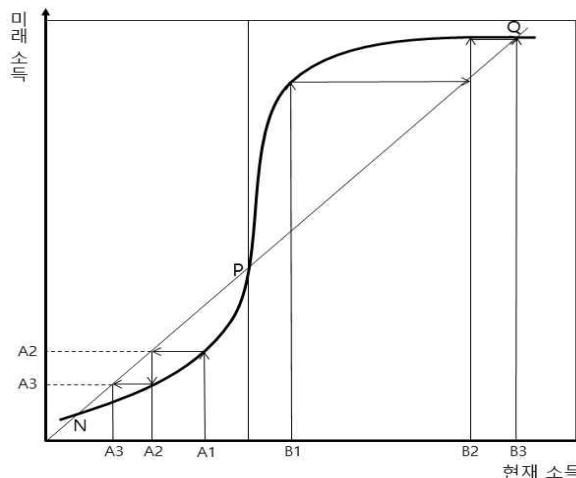
[국문논술 오전 문제1]

* 다음 내용을 보고 [문제 1]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가〉

우리는 현재 소득으로 식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출과 비료나 개량형 종자 구입 등 투자를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가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의 관계는 아래 〈그림 1〉에서 곡선의 형태로 표시된다. 이 곡선을 S자형 곡선이라고 부르자. ‘빈곤의 덫’은 이 S자형 곡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각선상에서는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이 같다. 빈곤의 덫 영역에 속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의 경우 미래 소득이 현재 소득보다 낮다. 즉 곡선이 대각선 아래에 있다. 이 영역에 속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난해져 점 N으로 표시되는 빈곤의 덫에 갇힌다. A1에서 시작하는 화살표는 가능한 이동경로(A1→A2→A3→ …)를 나타낸다.

〈그림 1〉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의 S자형 곡선



〈나〉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까닭은 그들이 지정학적으로 열대의 불모지에 위치해 말라리아가 극심할 뿐 아니라 육지 에 둘러싸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대적인 초기 투자로 지역 특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지 않으면 이들 지역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어렵다. 문제는 가난한 나라가 이러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것이 빈곤의 덫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논리다. 이 주장은 빈곤 문제와 관련해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유 시장이나 민주주의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기서 핵심 열쇠는 해외 원조다. 이들은 가난한 나라가 주요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지원을 하면 선순환의 시동을 걸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투자로 가난한 나라의 소득이 늘어날 경우 추가적인 투자가 발생해 선순환이 계속된다.

〈다〉

해외 원조는 독자적인 해결책 마련을 막을 뿐 아니라 피원조국의 여러 기구를 부패로 내몰고 기반을

약화시킨다. 나아가 해외 원조기구가 영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든다. 가난한 나라의 입장에서 유일한 대안은 자유 시장 시스템을 도입해 적절한 동기부여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가난한 나라는 외국의 기부금이나 보조금에 기대면 안 된다.

[문제 1] 제시문 <가>의 밑줄 친 부분에서 화살표를 따라 '빈곤의 덫'에 빠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제시문 <나>에서 제시된 해외 원조의 효과를 S자형 곡선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제시문 <다>의 견해에 비추어 S자형 곡선의 타당성에 대해 논하시오. (500자, 40점)

1. 출제 의도

빈곤국의 경제개발 이론의 한 모형인 빈곤의 덫 S자형 곡선의 논리적 설명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빈곤의 덫 이론의 응용을 통해 해외 원조 정책을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도 평가하고자 하였음.

2. 문항 해설

빈곤의 덫에서 소득의 동태적 경로를 설명하는 질문은 그래프의 횡축과 종축의 의미와 관계를 이해하고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의 동태적 관계를 그래프에서 읽어내도록 설계한 것임. 해외 원조 효과를 그래프에서 설명하게 한 질문은 해외 원조에 따라 소득의 초기 조건이 달라지면서 소득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유추해 낼 수 있도록 한 것임. 마지막으로 해외 원조 무용론을 통해 기존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모형에서 고려된 요소 이외의 요소를 통해 기존 이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임.

3. 예시 답안 혹은 정답

가난한 나라의 현재 소득이 A1이라면 S자형 곡선에 따라 미래 소득은 A2가 된다. 이는 다음 기의 현재 소득이 A2가 됨을 의미하고 S자형 곡선에 따라 다음 기의 미래소득은 A3가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면 이 나라의 소득은 점 N으로 가게 된다. 점 N점에서는 소득이 다시 증가하더라도 위의 과정이 반복되어 점 N으로 돌아오게 된다. 만일 해외 원조를 통해 이 나라의 현재 소득이 B1으로 간다면 이 나라의 미래 소득은 S자형 곡선을 따라 B2가 되고 이는 다음기의 현재 소득이 되어 S자형 곡선을 따라 다음기의 미래 소득을 증가시켜 점 Q까지 소득이 증가하여 빈곤의 덫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제시문 <다>에 따르면 해외 원조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소득이 S자형 곡선을 따라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가난한 나라에게 S자형 곡선의 점 P 오른쪽 곡선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가난한 나라에서 부패 방지, 해외 원조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 시장 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문논술 오전 문제2]

* 다음 내용을 보고 [문제 2]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가〉

기업은 국가 경제 순환과 성장의 중요한 주체로서 노동, 자본, 자연자원,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생산활동을 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주요 생산요소의 공급이 줄거나 그 생산성이 떨어지면 기업의 생산활동이 영향을 받아 경제의 순환과 성장은 둔화할 수밖에 없다. 21세기 각국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 활동 참여 인구의 감소와 이로 말미암은 경제 성장 동력의 저하인데, 여러 국가는 외국 노동력의 유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노동력의 유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동 공급의 감소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기술 진보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지능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지능정보기술이 변화의 핵심 요소이다. ‘지능정보기술’은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활용 기술을 융합하여 기계에게 인간의 고차원적 정보 처리(인지, 학습, 추론) 능력을 적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지능정보기술에 의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자동화로 대체되기 어려운 창의적, 감성적 업무에 집중될 것이며 나아가 과거 산업혁명 시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직업이 창출될 수 있다. 그러나 지능정보기술과 로봇공학 등의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여 단순 반복 업무뿐만 아니라 지적 노동, 중급 사무 업무, 정밀한 육체 노동까지 자동화 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는 경우 인간과 기계 간의 일자리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나〉

향후 인공지능에 의해 어떤 일자리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에 관해 옥스포드 대학의 칼 프레이(Carl Frey)와 마이클 오스본(Michael Osborne)은 〈고용의 미래: 직업은 컴퓨터화에 어느 정도 민감한가?〉라는 논문에서 연구 대상 직업의 47퍼센트가 기술적 관점에서 잠재적으로 컴퓨터에 의해 자동화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프레이와 오스본은 이런 직업 대부분이 가진 공통점은 고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저소득 직업이라고 밝혔다. 저자들은 이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변호사, 언론인, 과학자, 약사 등과 같은 숙련전문가들의 일자리도 이미 정보 기술에 의해 잠식되고 있으며, 학위와 기능의 습득이 반드시 미래의 업무 자동화에 대비한 효과적 보호책이 되지 않는다.”는 마틴 포드(Martin Ford)의 주장을 반박하며, 숙련전문직을 대체하려 자동화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은 광범위한 오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숙련전문직은 자동화로 사라질 수 있는 업무를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자동화하기 어려운 업무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의 위험이 낮다고 진단했다.

〈다〉

어떤 업무들이 자동화될 수 있을 것인가와는 별개로, 얼마나 빨리 그러한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자동화의 속도는 기술의 성능 향상 및 결함 보완 등 기술 자체의 요인들뿐 아니라, 관련 응용 및 보완 기술의 발전, 기술의 활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숙련 인력의 수급, 기술과 기존 조직·공정·전략과의 적합성, 소비자 선호도, 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노동자의 저항, 기술 변동에 따른 정치집단의 이해관계 변동, 관련 법규의 미비 등 기술 자체를 넘어선 많은 요인에 달려있다. 과거의 증기 기관, 컴퓨터 등 궁극적으로는 광범위하게 산업에 채택된 기술들의 산업 적용 궤적들은 기술 개발 초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기술의 잠재적 역량은 인정하면서도 앞서 언급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신기술의 채택을 꺼렸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

자동화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고 예측하는 것도 단순하지 않다.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기술의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로이 아마라(Roy Amara)의 관찰처럼 자동화의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를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산업혁명 초기에는 기계화에 의해 기존 가내공업제의 장인 노동자들이 기계에 의해 대체되고, 이 기계는 협상력이 약하고 무임금으로 일하는 미숙련 노동자들이 주로 다루도록 설계됐었다. 기업가들은 기계화를 통해 증가한 기업 수익을 장악해 공장과 기계에 재투자했다. 이 시기에 많은 시민의 생활 수준은 정체되거나 악화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산업혁명 후반기 몇 십 년 동안에는 증기의 채택과 더불어 기계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가속화하면서 실질 임금도 동시에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던 산업혁명 초기와는 반대로 기술이 노동을 활성화했기 때문이다. 공장에 더 복잡한 기계들이 도입되면서 이를 운영할 좀 더 숙련된 노동자들이 필요해졌고, 이들의 기능은 기술에 의해서 더욱 증진됐다. 갈수록 규모가 커진 공장에는 더 많은 기술직과 좀 더 숙련된 행정 인력이 필요했다. 숙련 기능 노동자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노동자의 협상력도 증대했다. 이러한 성장 패턴의 도래는 기계에 대한 노동자들의 만연한 저항도 종식시켰다. 노동을 대체하여 노동의 비중과 임금을 감소시키던 기술이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노동집약적 업무를 창출하여 노동의 비중과 임금을 증가시키는 기술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기술에 대한 태도도 바뀐 것이다.

〈마〉

인공지능의 산업계 채택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매킨지 글로벌의 2017년 설문 결과는 인공지능을 대규모로 사업과 경영에 투입한 회사는 거의 없었고, 많지 않은 인공지능 사용 사례 중에서도 겨우 12퍼센트만 상업적으로 인공지능을 투입했음을 드러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자동화가 일어나게 하는 데 훨씬 적은 자본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기계학습시스템을 활용하려면 상당량의 보완적 투자가 필요하다. 구글의 수석경제학자 할 배리언(Hal Varian)에 따르면 인공지능 활용의 첫 번째 필요조건은 관심 대상 데이터를 수집해 관련된 다른 데이터들과 결합하여 정리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갖추는 것인데, 이는 매우 노동집약적이고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다. 이러한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데이터가 갖추어진 다음에도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가 일어나려면 불가피하게 무수히 많은 부수적 발명과 적응이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 채택의 궤적은 과거의 역사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문제 2] 제시문 〈가〉 ~ 〈마〉에 근거하여 ‘지능정보기술’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지능정보기술이 단기적, 장기적으로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기술하고, 지능정보기술을 바람직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하시오. (800자, 60점)

1. 출제 의도

대학에서의 학습에 요구되는 독해, 통합, 추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과서와 EBS 교재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의 교양·전문서적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학습을 통해 길러진 독해, 추론, 비판 등 종합적 사고 능력과 표현 능력을 활용하여 답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2. 문항 해설

제시문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각 제시문 간의 관련성을 통합적 시선에서 파악하여 주어진 현상·문제에 대한 의견을 자신의 관점에서 종합하는 독해, 통합, 추론 능력을 평가한다.

3. 예시 답안 혹은 정답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의 사회 변동은 주요 생산 요소인 노동의 공급을 줄이고 그 생산성을 떨어뜨려 경제 순환과 성장을 둔화시킨다. 이러한 환경에서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진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지능정보기술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이다.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활용은 단기적으로 지능정보기술은 노동 공급이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여 생산성 저하를 막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도 있으나, 기술 도입 초기의 높은 도입 비용, 기술의 예측 못한 결함, 기존 조직·공정·전략과의 부적합, 기술 활용 인력 부족 등에 의해 생산성이 오히려 저하될 수도 있다. 아울러 지능정보기술에 의해 대체가능성이 높은 미숙련, 저임금 근로자들의 저항에 따른 사회 갈등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장기적으로도 지능정보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저학력, 저소득 근로자들뿐 아니라 고학력, 숙련전문직 근로자까지 대체하는 경우, 기술을 보유한 기업가들과 근로자들 간의 소득 격차 등 사회적 불균형 등이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고착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능정보기술이 과거 산업혁명 후기의 기계화 기술처럼 노동을 활성화하는 기술로 진화하여 새로운 산업의 일어나고 이를 위한 새로운 노동 수요가 창출되고 경제 성장이 증진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지능기술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며 긍정적 효과를 보다 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술 발전과 활용 관련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 지능정보기술의 응용 시장 발굴, 조직·공정·전략의 혁신, 관련 법규의 정비, 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근로자들을 위한 재교육 및 사회보장 장치 마련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문논술 오후 문제1]

* 다음 내용을 보고 [문제 1]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가〉

‘평화주의자의 딜레마’는 폭력의 역학 변화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다. 모든 개인과 연합체는 공격에서 승리하여 이득을 누리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협동자를 배신하는 행동), 똑같은 유혹에 따라 행동하는 상대에게 패배하여 손실을 치르는 일도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둘 다 공격을 택한다면, 그들은 괴로운 전쟁에 빠져들어(상호 배신) 둘 다 평화를 택했을 때보다(상호 협동) 더 나쁜 상태에 도달한다. 〈표 1〉의 손익 표는 평화주의자의 딜레마를 보여 준다. 비록 이 손익 표에서 이득과 손실에 주어진 값은 임의적이지만, 딜레마의 비극적 구조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예를 들어, 세상이 〈표 1〉과 같은 손익 구조일 때 평화주의자가 되는 것은 비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상대가 평화주의자라면, 나는 공격자로서 상대의 취약성을 이용하고픈 유혹을 느낀다. 승리의 10의 이득이 평화의 5의 이득보다 낮기 때문이다. 상대가 공격자라면, 나는 평화주의자로서 상대에게 착취당하는 희생자가 되느니 공격자로서 전쟁의 괴로움을 견디는 편이 낫다. 착취당하는 희생자가 되면 처참한 100의 손실을, 전쟁을 택한다면 50의 손실을 겪는다. 결국, 어느 쪽이든 공격이 합리적 선택이다.

〈표 1〉 평화주의자의 딜레마

		상대의 선택	
		평화주의자	공격자
나의 선택	평화주의자	(5, 5)	(-100, 10)
	공격자	(10, -100)	(-50, -50)

*괄호 안의 첫 번째 값은 나의 손익, 두 번째 값은 상대의 손익을 의미

〈나〉

인간의 자연 상태는 만인이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은 오로지 그 자신의 이성에 의해서만이 통치되며, 자신의 생명을 적들로부터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선 그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이용할 수 없는 것 혹은 이용해서 안 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연권(right of nature)에 의해 모든 인간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심지어 타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까지도 갖는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만물과 타인의 신체에 대해 이와 같은 자연의 보편적 권리를 갖고 있는 상태가 존속하는 한, 자연이 보통 인간에게 살도록 허용한 시간을 다 살 수 있는 안전은 어떠한 인간에게도 보장되지는 않는다.

상호신뢰에 의한 계약은 어느 쪽이든 한 쪽에 불이행의 우려가 있는 곳에선 무효이다. 따라서 정의의 원천이 계약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우려의 원인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실제상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두려움의 원인은 인간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제거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의 이름이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선 그 전에 어떤 강제력이 존재하여 인간들이 계약의 파기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좀 더 큰 처벌의 공포에 의해 그들로 하여금 똑같이 계약을 이행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다〉

부족 사회가 최초의 국가들의 통제를 받게 되자, 습격과 복수가 억제되어 폭력적 사망률이 5분의 1로 줄었다. 유럽의 봉토들이 왕국과 주권 국가로 융합되어 법 제도가 통합되자, 살인율은 또다시 30분의 1로 줄었다. 반면에 정부의 손길을 벗어난 무정부 상태의 고립 지역은 폭력적인 문화를 유지했다. 유럽 주변부와 내륙 산악 지대가 그랬고, 미국 남부와 서부 변경 지역이 그랬다. 사회 경제적 풍경에서의 무정부적 고립 지대도 마찬가지였다. 하층 계급은 일관된 법 집행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고, 밀수업자들 역시 법 집행에 의지할 수 없었다. 갑작스러운 탈식민화, 실패한 국가, 혼탁한 정치, 경찰 파업 등 법 집행이 후퇴한 때는 폭력이 도로 아우성쳤다. 무능한 정부는 가장 중요한 내전 위험 요소로 밝혀졌다. 폭력으로 황폐해진 개발도상국들과 그보다 평화로운 선진국들을 가르는 주된 요인이 그 점일 것이다.

[문제 1]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표 1〉의 손익 값(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이를 통해 제시문 〈가〉에서 제시하는 ‘평화주의자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시오. (500자, 40점)

1. 출제 의도

이 문제는 주어진 제시문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각 제시문 간의 맥락을 통합적 시선에서 파악하여 주어진 문제를 자신의 관점에서 종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지원자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 추론 및 논리적 사고 능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한다.

2. 문항 해설

인류 역사에서 인간 폭력의 감소에 있어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주장한 국가의 역할을 평화주의자의 딜레마라는 게임이론의 틀을 활용하여 추론한다.

3. 예시 답안 혹은 정답

제시문 [나]는 인간이 개인의 생존이 보장될 수 없는 자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절대적 권위를 지닌 주권자에게 복종할 것을 승인하는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국가를 수립함으로써, 국가의 통제 혹은 법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 역시 인류의 역사에서 국가의 형성과 통제가 어떻게 폭력을 감소시켜왔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주장을 제시문 [가]의 평화주의자의 딜레마에 적용해보자. 만일 국가가 폭력의 역학 관계에서 공격자에게 평화 대신 공격을 택했을 때의 이득보다 세 배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한다면, 잠재적 공격자가 택할 두 선택지의 매력에 달라져 전쟁보다 평화의 호소력이 더 커진다. 이 경우를 〈표 1〉로 예를 들면, 잠재적 공격자가 공격을 택했을 때의 이득은 10-15로 -5가 되며, 나와 상대방 모두 공격을 선택하여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양측 모두의 이득은 -50-150으로 -200이 된다. 결국 잠재적 공격자는 평화를 유지하는 선택 이외에는 그 어떤 선택도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쟁보다 평화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국문논술 오후 문제2]

* 다음 내용을 보고 [문제 2]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가〉

민주정치는 시민 스스로 다스리는 동시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원리에 근거한다. 따라서 시민의 사회 참여는 민주 정치 그 자체이며,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시민의 사회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국가 권력은 소수의 손에 들어가 시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 오늘날 대의제 하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는 자신들의 의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 오늘날 시민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는 시민이 주권자로서 사회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에게는 정당성이 부여된다. 또한, 행정기관에 청원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며, 언론기관에 투고, 1인 시위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때로는 자신과 비슷한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정치적 의견을 함께하는 정당을 후원하거나,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이익집단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시민 단체 활동을 통해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경제, 환경,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들 외에도 집회나 서명운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여론으로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에서는 전자투표, 온라인 서명, 사이버 캠페인 등 정보매체를 이용한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초월한 사회 참여가 가능해졌다.

〈나〉

더러는 연대의식으로 정부의 조치나 국민을 비판하기도 한다. 애국심은 정부정책에 반대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을 벌였던 두 가지 근거를 예로 들어보자. 하나는 전쟁은 부당하다는 믿음이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우리가 치려야 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우리 국민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전쟁이라는 믿음이었다. 첫 번째 이유는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그 전쟁에 책임이 있는 나라의 시민들만이 느끼고 외칠 수 있다.

(중략)

가족이나 동료 시민의 행동에서 자부심과 수치심을 느끼는 감수성은 집단적 책임감을 느끼는 감수성과 연관된다. 둘 다 우리 자신을 어딘가에 소속된 자아로 인식하게 한다. 즉,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한데 묶여 있으며, 우리를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는 서사에 연관된 사람들이다.

(중략)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은 “개인이 단지 자신의 선택과 행동만 책임지면 그만이라고 고집한다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자부심을 느끼기는 어렵다. 다른 곳에 사는 누구라도 독립선언서, 헌법, 링컨의 케티스버그 연설, 알링턴 국립묘지에 잠든 영웅 등을 존경하거나 감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애국적 자부심을 느끼려면 세월을 뛰어넘어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소속감에는 책임감도 따라온다. 내 나라의 과거를 현재로 고집해내 도덕적 부채를 해결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나라와 역사에 진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없다.” 고 주장한다.

〈다〉

존 롤스(John Rawls)는 시민 불복종 개념을 “완전히 정의롭지 않으나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서 법률이나 정책 또는 명령이 정의의 원칙을 어겼을 경우에 사회협동 체제의 조건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항거인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 라고 정의한다. 즉, 롤스는 정의에 위배되는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시민 불복종을 인정하는데, 소수자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해 정의의 원칙에 따라 법을 바꾸도록 하는 공적 행위가 곧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이다. 불법적 행동에 대해 합법적 대응 수단을 취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렇더라도 합법적으로 대응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정상적인 시민으로서 불법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 다수의 침묵하고 무관심한 동료 시민들을 일깨우고 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민 불복종을 정당한 신념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불복종은 자유의 한 부분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외부의 권위에 대한 복종의 자유만 허용된다면, 이는 인간 내면으로부터 오는 자율의 실천으로서 자유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에리히 프롬(Erich S. Fromm)은 “인류의 파멸은 증오와 탐욕, 파괴적 행동에 대해 개개인들이 복종한 결과로 생겨난 것이며, 불복종한 의지의 행사를 통해 그나마 파멸을 막고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 고 했다.

〈라〉

제2차 세계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는 기차 안에서 한 젊은이가 자신의 처지를 절망하며 외쳤다.

“①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독일에 해가 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꼬박꼬박 세금을 냈고, 법을 지켰으며,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의 외침에 기차 안은 조용해졌고, 모두들 그 젊은이의 분노와 절망에 동감하는 듯하였다. 그때 한 노인이 말하였다.

“②바로 그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걸세. 젊은이, 히틀러가 그토록 많은 죄를 저지르는 동안 그대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이지.”

[문제 2]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시민 불복종’ 개념을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밑줄 친 ⑥의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밑줄 친 ①의 내용을 비판하시오. (800자, 60점)

1. 출제 의도

본 문제는 제시문의 정보와 의도를 정확하게 리터러시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파악된 정보 간의 성격과 관계를 주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본 문제에서는 사회 참여와 공동체 의식 및 집단적 책임감이라는 관점에서 시민불복종의 본래적 개념을 어떻게 확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특정 주장에 대한 내포적 의미를 파악하고 비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2. 문항 해설

시민불복종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시문〈가〉와 제시문〈나〉의 관점을 이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민불복종의 개념의 구체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를 근거로 제시문〈라〉의 ⑥의 의미를 상세하고 기술 할 수 있는지 ①을 비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예시 답안 혹은 정답

제시문<다>에서 제시한 ‘시민 불복종’ 개념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정의에 위배되는 법률, 정책, 명령 등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저항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제시문<가>는 민주 정치의 핵심요소로 사회 참여를 제시한다. 사회 참여는 자신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다양한 일체의 활동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민 불복종’은 가장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다수의 정의에 위배되는 국가권력에 대한 구체적인 저항이고 목적지향적인 항거이다.

제시문<나>에서는 공동체의 소속감과 연대의식 그리고 집단적인 책임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민 불복종’은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 사회 등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분명한 연대의식과 책임감을 전제로 한 문제 제기며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의 선택과 행위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그것에 대한 집단적인 책임감이 전제될 때, 시민 불복종의 성격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고,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⑥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부당한 국가권력의 요구에 무관심했거나 적극적인 형태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말은 ②의 ‘아무런 해가 될 일을 하지 않았다’와 대구를 이루며 그 인식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③에서 젊은이가 말하는 의무는 시민 사회의 최소 의무일 뿐이다. 젊은이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바탕으로 부당한 권력의 정의롭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했어야만 했다. 따라서 ②의 젊은이 주장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의식, 집단적인 책임감이 없으며, 사회 참여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